

# 도, 행안부에 신속한 복구지원 건의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익산 호우피해지역 현장점검... 4개 하천 복구비 지원과 군산·익산·무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2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익산 피해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가 심한 4개 하천의 복구비 우선지원과 군산·익산·무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장관에 건의했다. 현재 전북자치도 피해액은 하천 및 도로 등 공공시설 436건에 437억원,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23,488건 194억 원 등 총 63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된다.

이날 이상민 장관과 최병관 부지사는 익산 산북천 하천제방유실 피해현장과 산북천 재해복구사업장, 합라산 산사태 현장을 살피고, 복구에 힘쓰는 관계자 등을 격려하는 등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최병관 부지사는 호우 때마다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도내 4개 하천에 대해서 복구지원금 1,058억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줄 것



24일 익산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해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을 장관에게 건의하였다. 310억원, 원주 장선천 335억원, 성북천 198억원, 과목동천 215억원 총 1,058억

원이다.

또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주군에 이어 군산, 익산, 무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하였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번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이 적극 협조해 호우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이 지난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공공시설 피해를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 비용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중 확정예정이다.

/이만호기자

# '완주-전주 통합 객관적 검증한다'

### 완주군, 발전위원회 출범... 용역 결과 논의 · 검증 역할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완주군이 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통합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24일 완주군청에서 열린 위촉식과 함께 첫 출발을 알린 완주군 발전위원회는 통합 관련 용역과 연계해 활동을 추진한다.

현재 주민 서명부 제출로 완주-전주 통합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통합 이후 주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과 불이익 등 우려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발전위원회는 용역(필요시 여론조사 등에서 농업, 교육, 복지, 행정 등 분야별 쟁점 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을 위원회에 제공하면 논의 및 검증 과정을 통해 의결한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발전위원회는 통합 관련 이해 관계인을 포함해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임필환 완주군 산림조합장, 정화철 통합반대추진위원회 대표, 성도경상생발전네트워크 대표, 김중기 전북대 식품유통학과 교수, 김천홍 우석대 혁신사업단 교수, 고선욱 우석대 아동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광수 전북교수연구자연연합회장, 고영삼 전북녹색환경기술센터 부장, 이희수 전 완주군 기획예산실장, 박형은 한아름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위촉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 발전위원회를 통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분야별 쟁점사항 검증과 평가, 타 지자체 통합사례 효과 분석 등 군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기자

# 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 실현 성과 점검

### 16대 핵심과제별 주관부서와 '비전 달성을 위한 점검회의' 개최

전북자치도는 2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특별자치도' 육성을 위해 2024년도 16대 핵심과제별 주관부서와 함께 비전 달성을 위한 상반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16개 핵심과제별 주관부서에서 123개 세부 성과지표의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23개 세부 성과지표 중 114건이 성과를 달성하거나 정상추진 중이고, 미흡 지표는 9건으로 확인됐으며, 6대 전략별 세부과제별로 보면, 청년창업 1번지 조성 10개 성과지표 중 '청년창업 1,900명(신규 606) 육성' 등 9개 과제가 정상추진 중이며, 시기 미도래 1개 과제인 '맞춤형 작물교육'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사업(7기)와 연계해 하반기에 추진 예정이다. 수요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견인 27개 성과지표 중 '농식품 대표기업 35

개소(신규 15개소) 육성' 등 22개 과제가 정상추진 중으로, 미흡 5개 과제는 하반기 행정절차 신속 및 중점추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며,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16개 성과지표 중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조성' 등 15개 과제가 정상추진 중이고, 미흡한 1개 과제(바이오융합 전문인력 육성 교육)는 하반기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위기대응 지속 가능 농업구조 전환 25개 성과지표 중 '스마트 축사 1,600 농가지원' 등 24개 과제가 정상추진 중이며, 미흡 1개 과제는 행정절차 신

속 추진을 통해 목표를 실현할 계획이며, 안심하고 농업 하는 경영안정 강화 17개 성과지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3천 명 도입' 등 17개 과제 모두가 정상추진 중으로, 하반기에는 100% 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상향 후 중점추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 조성 28개 성과지표 중 '농촌협약 10개 시·군'을 26개 과제가 정상추진 중이며, 미흡 2개 과제는 여름 휴가철 홍보 강화 등 하반기 중점추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만호기자

#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 현장의정활동

### 완주 하천수해현장 ·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제412회 임시회 기간 중인 24일 현지 의정활동으로 완주군 하천 수해현장 및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방문했다.

이번 현지 의정활동은 최근 심각한 폭우로 인한 이재민 구호 및 피해 응급복구 현황을 살펴봤다. 특히 지난 3개월간 잇따른 안전사고와 오·폐수 관리의 미흡함을 드러낸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류폐기물 폐수관리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점검 및 소관부서로부터의 현황 보고 등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위원회 위원들은 "수해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제방유실, 침수, 유실매몰 등 피해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오·폐수 무단방류 의혹 등을 점검하며 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곳인 만큼 사업행자와 감독기관의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기자

# 전북자치도, 중국 최대 자동차 부품유통사와 업무협약 · 수출계약 체결

### 도내 품질인증부품 2종 60만달러 규모로 중국시장 수출



전북특별자치도는 중국 최대 자동차 부품 유통사인 nCARZONE와 자동차 부품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협약을 맺고, 6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중국 최대 자동차 부품 유통사인 nCARZONE와 자동차 부품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협약을 맺고, 6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산 베스트웨스턴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초청기업인 중국 nCARZONE 그룹 상보국 회장 등 최고경영진을 비롯하여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도내 부품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한국자동차협회 전북지회와 nCARZONE 등과 업무협약식을 맺고 양국간 자동차부품 인증지원 협력, 제조사 교류 협력, 수출 지원

협력사업을 제도화했다.

이어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인 (주)아르텍(군산 소재), 드림디자인(군산 소재)과 nCARZONE의 수출계약식이 진행됐다.

두기업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앞 범퍼 2종 각 1,000개씩 총 6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해 앞으로 중국시장을 겨냥한 수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택립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부품산업의 제품 다각화와 고객사 다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 도, 외국인주민 모니터링단 모집

### 내달 7일까지 접수

전북자치도가 도내에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24일부터 '외국인 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외국인 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은 도내에 거주 외국인 주민이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항,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모니터링단은 20여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기 회의는 주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어 구사 가능·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주민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다음 달 7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청 외국인국제정책과(063-280-2082)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기자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